

예 배	일 시	장 소
주일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예배당
청년 큐티 나눔	금요일 오후 9시	Zoom
한민 말씀방	매일	카카오톡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주일 예배 봉사위원

	07. 31	08. 07	08. 14
대 표 기 도	강희수 성도	정용현 집사	김영희 권사
성 경 봉 독	강희수 성도	정용현 집사	김영희 권사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교회(히10:25)”



환영 : 예배를 위해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예배 안내 : YouTube에서 „브레멘 한민교회“ 검색하세요.

교회소식

7월 축복인사 - 물 댄 동산과 같은 복의 사람이 되세요.(성도 간에)
나는 물 댄 동산의 주인공이야!(자신에게)

1. 감사 - 난민 수용시설 방문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모든 일정을 은혜 안에서 마쳤습니다. 전쟁의 종식과 선교사님들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2. 예배 안내 - 1시30분부터 기도로 준비하시고 1시50분 찬양으로 예배가 시작됩니다. 1시30분 이후에는 조용하고 차분한 마음가짐을 가져 주십시오.

교우동정

생일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십 일 조	
감사헌금	
구제헌금	
합계(Euro)	



담임목사 이 상 호(Sang Ho Rhee)
예배만주 조 영 재 형제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9, 51,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http://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 찬 양 Gemeindelied Liebevoll 찬양팀
 송 영 Chor 반주자
 기 원 Altargebet 이상호 목사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새번역) 다같이
 찬 송 Gemeindelied 430장 다같이
 기 도 Gebet 김복자 권사
 성경봉독 Predigttext 에 5 : 1 - 4(구p754) 김복자 권사
 (Esther 5:1-4)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 (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이상호 목사
 설 교 Predigt 포기할 때 임하는 복 이상호 목사
 * 파송찬양 Abschlusslied 선한 능력으로 다같이
 * 축 도 Segnungsgebet 이상호 목사
 * 송 영 Chor 반주자

*** 표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헌금은 예배 전 입구에서 봉헌해 주세요.

† 다음 주일 기도 담당 : 강희수 성도

† 기도제목

1.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것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게 하소서
2. 한민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학업과 생업에 기쁨 부어 주소서
3. 브레멘의 각 대학에 입학한 한국유학생들이 한민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4. 우크라이나와 세계 평화와 경제 안정을 위해
5. 김선택, 장보경(헝가리)선교사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소서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길

내 생애 가장 큰 영향을 준 순교자는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평생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사셨고, 순교보다 더욱 값진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나는 목회를 하다가 힘들거나 안일해질 때 골방에서 이 찬송을 몇 번이고 부릅니다. 주 목사님이 부르신 이 찬송을 부르노라면 마음 속에 순교자의 영성이 되살아납니다.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의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 복락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주기철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더럽게 무릎 꿇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을 향한 정결을 지켜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30대에, 스테반도 청장년의 시기에 뜨거운 피를 뿌려 최후를 마쳤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에 제물이 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내게 오는 십자가 고난을 피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향한 일사각오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려면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고난을 능히 감당할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어느 시대든지 주님을 위해 일사각오를 가진 사람들이 있을 때에 새 역사가 시작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순교자 신앙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을 찾고 계십니다.

눈물을 먹은 마음 / 故 이종표 목사

* 가진 것을 주고 쓰라. 그러면 하나님이 더 보내실 것이다.

- Henry Georg Bohn -